

대전시 중구 중촌동 수소충전소 구축을 반대합니다

※위치 : 맘모스 LPG 충전소 부지 내(중구 중촌동 413-43)

※사업자 :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외 1인

〈핵심〉

대전시는 중구 중촌동 맘모스 LPG 충전소 부지 내에 수소충전소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수소충전소는 아직 국민들에게 안전성 면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에 대부분 도심 외 비주거지에 설치되고 있는 반면에, 대전시는 대전의 도심 가운데, 밀집 주거지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정부의 수소 경제 정책에 맞춰 얼마나 많은 예산과 정치적 잇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정부의 조사가 필요할 지경입니다.

1. 얼마나 안내가 부족한지 지역 내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려고 한다는 소식조차 주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수소충전소 건립 사업 설명회에 대한 안내도 부족했으며, 코로나 시국을 틈타 사전 신청 및 선착순 20명을 한정했는데, 어찌 20명이 대전시 중심가에 수소 충전소 건립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할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중촌동에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중촌동은 인근 서구와 대덕구가 접해있는 대전의 중심가이기 때문에 대전 전 시민들을 상대로 의견 수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3. 수소충전소가 설치된다면 가장 가까운 주거시설은 중촌푸르지오센터파크(820세대, 설치위치와 300m 이내)가 되는데, 아직 입주하기 전입니다. 중촌푸르지오센터파크가 입주한다면 설치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민원이 더 거세질 것을 두려워해 입주 전에 빨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의 내용만 보더라도 대전시는 코로나 시국을 틈타 국민들의 관심이 부족할 때, 중촌동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려는 날치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와 중구청, 그리고 사업자인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가 어떤 이권을 가지고 주민들 모르게 기간 동안의 설명회 홍보도 없이 사업을 조용

히 추진하고 있는지 신속히 그 내막을 조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

〈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시 중구 중촌푸르지오센터파크 입주예정자입니다. 현재 대전시가 중구 중촌동 맘모스 LPG 충전소 부지 내에 수소충전소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함과 동시에 본 사업의 내막을 조사해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정부는 2040년까지 연간 43조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며 장밋빛 수소 경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맞춰 전국에 수소 관련 시설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 이후 우려가 커지면서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나오며 국민들의 정서는 이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광역시도 대전의 중심에 주택가가 밀집된 중촌동의 가스충전소 안에 수소충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입주 주민들은 설명회 개최 여부는 물론, 수소충전소가 들어온다는 소식조차 들어보지 못했고, 안전성 검증도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식당을 하는 한 예비 입주자는, "수소충전소가 아직 안전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리 주거지 인근에 지어진다는 데 우려가 큰 상황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하나같이 지난 2019년 5월 8명의 사상자와 550억 원의 재산피해를 낸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연합뉴스/강릉 수소탱크 폭발현장 전쟁터처럼 참혹...7km 떨어진 곳에서도 '황~'"/

<https://youtu.be/lRd4uvdqBNY>)는 전쟁터 같이 참혹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중구청은 지난 8월 11일에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강릉 수소탱크 폭발은 수소탱크에 기준보다 많은 산소가 유입돼 폭발한 것이다. 수소가 다른 에너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하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들과 전문가들은 수소 관리의 위험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소 생산과 저장, 운반까지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술도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덕환 명예교수 / 서강대학교 화학과

"수소가 폭발하면 이 열이나 폭음보다 쇼크웨이브(충격파)라는 거에 의해서 굉장히 넓은 지역에 피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모든 과정에서의 안전 기술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탱크의) 수소가스 내에 산소 농도가 몇 퍼센트 이하,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선진국에서는 1.6% 이하라고 규정돼 있는데요. 강력하게 산소 농도를 규제하지 않으면 이런 사고는 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소충전소가 아직 안전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리 주거지 인근에 지어진다는 데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대전시는 현재 수소충전소 3곳 운영하고 있으며, 4곳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운영 개소 : 3개〉

1) 학하충전소 : 유성구 학하동 501-2

* 최인접 아파트단지 : 계룡리슈빌 학의뜰 아파트 704세대 (1.2km)

2) 신탄진휴게소 충전소 : 대덕구 상서동 236-1

* 최인접 아파트단지 : 행복한마을 신일유토빌 아파트 589세대 (1.0km)

3) 대전중도가스 충전소 : 동구 대성동 206-1

* 최인접 아파트단지 : 삼익 세라믹아파트 633세대 (0.5km)

〈설치중 개소 : 4개〉

1) 신대지구공영차고지 충전소 : 대덕구 와동 305-1

* 최인접 아파트단지 : 와동 현대아파트 656세대 (0.6km)

2) 낭월공영차고지 충전소 : 동구 구도동 81

* 최인접 아파트단지 : 대전낭월주공아파트 1,072세대 (1.3km)

3) 자운대(국군간호사관학교) 충전소 : 유성구 자운동 97

* 최인접 아파트단지 : 대림두레아파트 840세대 (1.2km)

4) 대전현충원 충전소 : 유성구 갑동 394-34

* 최인접 아파트단지 : 운암 네오미아아파트 474세대 (1.0km)

- 아파트는 400세대 이상 단지 중 가장 인접한 단지 선정

〈중촌동 수소충전소 설치 시〉

대전 도심 내 최초 설치 사례가 되며, 수소충전소가 도심 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선례 없음. 사고 발생시 인접 둔산 및 중촌동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대형 인명사고 가능

○ 해당 충전소에서 500m~1km 내에 9,374세대의 대규모 주택단지 밀집중

- 500m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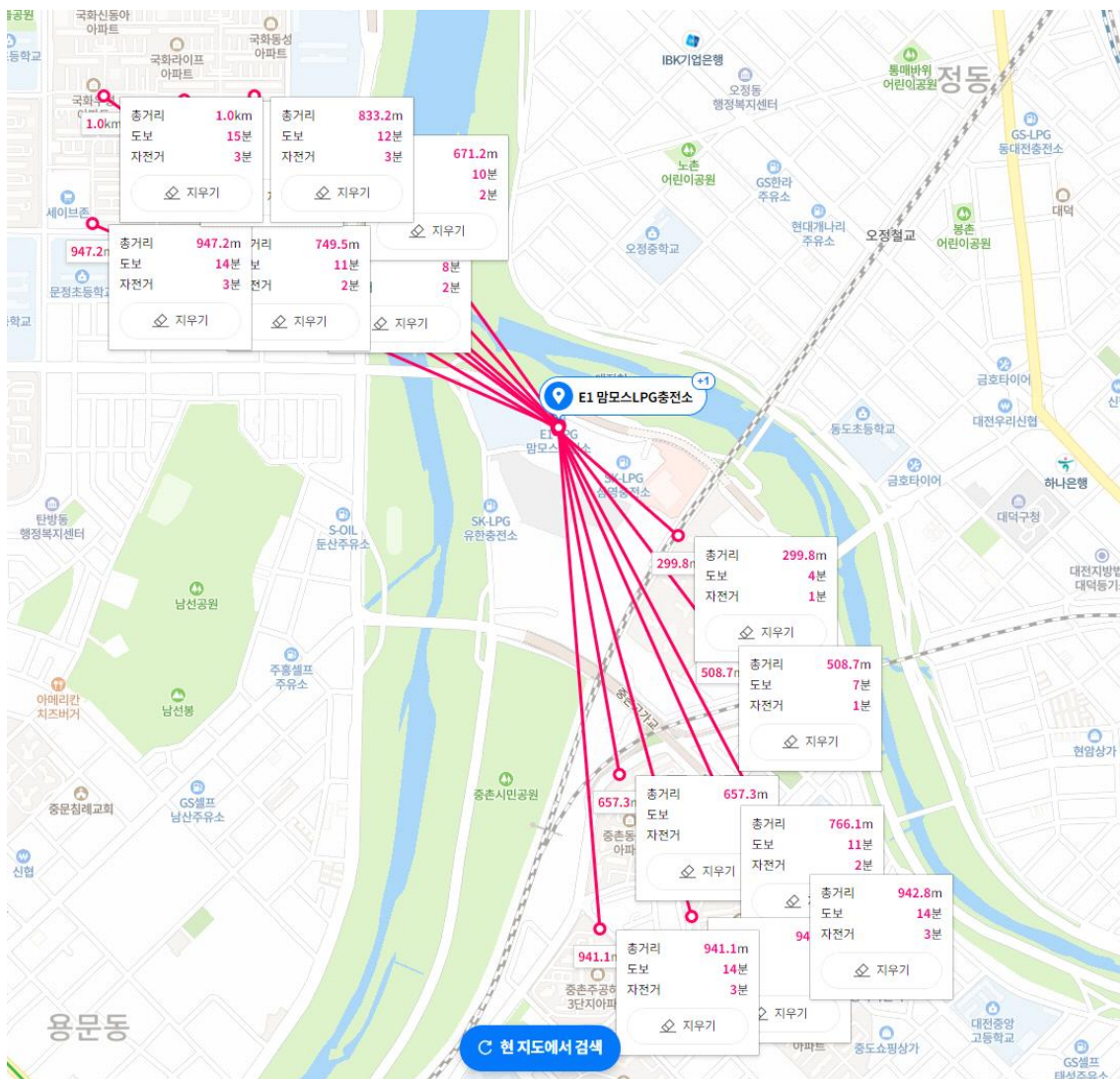
: 중촌푸르지오센티파크(300m, 820세대, 어린이집 포함)

: 중촌주공2단지(500m, 948세대, 어린이집 포함)

- 1km 내

1) 둔산권역 : 보라2단지아파트 등 7개 단지 및 4,724세대

2) 중촌동권역 : 중촌동금호아파트 등 5개 단지 및 2,882세대



가연성 고압 가스 시설인 LPG 충전소 내에 수소 충전소를 설치한다면 폭발 사고 시 LPG 충전소까지 연쇄 폭발로 더 큰 사고가 날 확률이 있기에 안전 환경면에서는 낙제점입니다. 주민들의 걱정과 우려는 더욱 커집니다. 상기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 대책방안이 나오고, 또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한 다음에야 본 사업은 진행해야 합니다. 더불어 중촌동은 서구 둔산권과 대덕구 오정동등 3개구가 접해있는 대전의 중심지이기에 대전 시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코로나 팬데믹에 거리두기 4단계 시국에 온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은 고려치 않고 사업을 추진하려는 집단의 이권과 행정 편의성, 공사 편의성을 위한 날치기 사업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